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新都八景>과 <<大明一統志>>의
<京師八景> 비교

(한중연, 안장리)

1. 서론

2. 창작 배경과 수록 양상

2.1. 신도팔경시

2.2. 경사팔경시

3. 팔경 내용 및 형식 특징 비교

3.1 국방의 강조

3.2 왕의 덕화와 성리학의 교화

3.3 선계의 승경과 도읍의 문명화

3.4 인재 초빙과 천년왕업

3.5 전대와의 비교

4. 경사팔경시의 전래

5. 결론

1. 서론

景勝을 수로 세어 드는 일은 漢魏 때의 갈석십경까지 소급되나 북송 때 창작된 소상팔경에 의해 규범화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¹⁾ 소상팔경은 <平沙落雁>, <遠浦歸帆>, <山市青嵐>, <江天暮雪>, <洞庭秋月>, <瀟湘夜雨>, <烟寺晚鍾>, <漁村夕照> 등 여덟 개의 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송 송적의 소상팔경도를 효시로 본다. 이 소상팔경이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동아시아 팔경의 전범이 된다.²⁾

소상팔경은 소표제에서 보듯이 어촌, 산림, 강가 등 산간벽지의 외진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송나라 영종, 고려 명종 등 최고의 권력자들도 이를 흠모하여 그림을 모사하고 수창을 하게 하였다.³⁾ 한국에서 소상팔경을 통해 추구하려 한 것은 이처럼 한국에서 추구한 소상팔경의 세계는 경관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속세에서 벗어난 이상경의 추구였다.⁴⁾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원나라나 조선에 팔경이 없는 곳이 없다는 인식이 생기기도 하였다.⁵⁾ 팔경이 유행하면서 자신의 지역을 승경으로 드러내기 위해 팔경을 설정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런데 이런 팔경시를 국가적 편찬서인 지리지에 반영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이 주목된다. 명나라는 <<대명일통지>>에 조선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하였으며, 특히 조선에서는 ‘제영’조에 당대까지 회자되던 대부분의 팔경시를 수록하면서 제영조의 특징을 “가송왕화”라고 천명하는데 팔경시가 승경의 제시, 현실을 떠난 이상향, 속세에 벗어난 자연 세상에서 벗어나 국가적 의미의 시로 탈바꿈되는 사건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시문의 창작 배경, 수록 양상, 내용의 특징, 후대의 영향 등을 고찰하여 이 팔경시들이 팔경시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는지 팔경시의 본질적 특성을 해체하는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창작배경과 수록양상

2.1 신도팔경시

조선의 신도팔경시는 개국공신인 정도전에 의해 창작되고 권근과 권우, 성석린 등에 의해 수창된다. 신도팔경시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도읍 한양은 고려시대부터 도읍의 물망에 있었고 실제 도읍으로 삼은 적도 있었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왕조에서는 도읍으로서 한양의 당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⁶⁾ 이에 따라 당대 유행하던 악장이나 경기체가로 신도가, 상대별곡, 신도형승지곡 등 새로운 도읍을 홍보하곤 하였다.⁷⁾ 이 작품도 그런 정치적 맥락에서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 성립의 기본은 영토이므로 이를 정리한 지리지는 국가운영상의 절대적 통치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 지리지 편찬에 역량을 보인 것은 세종때 부터이다. 세종은

1424 년(세종 6)부터 지리지 편찬에 관심을 가졌으며 1432 년(세종 14)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세종실록지리지>를 편찬한다. 이 지리지는 행정, 경제, 군사, 사회, 풍속, 자연환경 등 국가 지리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런데 1481 년에 완성된 <동국여지승람> 서문을 보면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연혁(沿革)을 먼저 쓴 것은 한 고을의 흥폐를 먼저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풍속과 형승을 다음에 쓴 것은 풍속은 한 고을을 유지시키는 바이며, 형승은 사경(四境)을 공재(控帶)하는 바이므로 명산대천(名山大川)을 경위(經緯)로 삼고, 높은 성과 큰 보루를 금포(襟抱)로 삼았습니다. 묘사(廟社)를 맨 먼저 기재한 것은 조종(祖宗)을 높이며 신기(神祇)를 존경해서이고, 다음에 궁실(宮室)을 쓴 것은 상하의 구분을 엄하게 하고, 위엄과 무거움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부(五部)를 정해서 방리(坊里)를 구분하며, 여러 관청을 설치하여 모든 사무를 보는데, 능침(陵寢)은 조종의 길이 편안한 곳이며, 사(祠)와 단(壇)은 또 국가의 폐하지 못할 전례입니다. 학교를 일으키는 것은 일국의 인재를 교육하려는 것이고, 정문(旌門)을 세우는 것은 삼강(三綱)의 근본을 표창하려는 것입니다. 사찰(寺刹)은 역대로 거기에서 복을 빌었고, 사묘(祠墓)는 선현(先賢)을 사모하여 추숭(追崇)한 것입니다. 토산은 공부(貢賦)가 나오는 바이고, 창고는 공부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누대(樓臺)는 때에 따라 놀며 사신(使臣)을 접대하는 것이고, 원우(院宇)는 여행객을 접대하고 도적을 금하는 것입니다. 관장(關防)을 웅장하게 한 것은 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참(站)과 역(驛)을 벌여 놓은 것은 사명(使命)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물(人物)은 과거의 어진 이를 기록한 것이고, 명환(名宦)은 장래에 잘하기를 권한 것입니다. 또 제영(題詠)을 마지막에 둔 것은 물상(物像)을 읊조리며 왕화(王化)를 노래하여 칭송함은 실로 시(詩)와 문(文)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서 보다시피 세종실록지리지에 있었던 호구, 전결, 군정 등 통치자료로서 기본적인 내용이 빠지고 정문, 사묘, 제영 등 유교 및 문화적 특성이 있는 항목을 첨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항목상으로 보이지 않으나 □동문선□의 내용을 담으라고 하여 도처에 관련 시문을 등재했을 뿐 아니라 제영조를 신설하여 당대까지 창작된 지역관련 팔경시를 대부분 첨입하였다. 결국 당대 동국여지승람 편찬자들은 팔경시 전체의 성격을 ‘가송왕화’로 정의한 셈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도팔경시는 동국여지승람 제영조에 실려있는데 소표제에 제시된 해당 항목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소표제명	장소	문	조
기전산하	승람 전체		
도성궁원	경도 상	국도,성곽, 궁궐, 원유	
열서성공	경도 하	문직공서, 무직공서	
제방기포	경도 상	문직공서 ¹⁾	
동문교장	경도 하	무직공서	훈련원

서강조박	한성부	산천	서강
남도행인	한성부	산천	노량
북교목마	한성부	산천	전관

이들 경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기전산하- 한양 경기(기전)지역과 전국토(산하)가 태평함

도성궁원- 도성에 있는 국도, 성곽, 궁궐, 원유 등이 웅장하고 아름답음.

열서성공- 도성에 있는 문직공서와 무직공서가 궁궐을 향해 집중됨

제방기포- 도성에 있는 49 방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됨

동문교장- 훈련원에서 이뤄지는 군사훈련의 위용

서강조박- 한강의 서강에서 조운 선박이 즐비함

남도행인- 한강 노량진을 건너는 서민들이 장유유서를 따름

북교목마- 국가의 말을 기르는 살곶이의 활기참

2.2 경사팔경시

명대의 경사팔경시는 본래 금나라 때 팔경의 대상으로 읍은 이래 청나라 때까지 유행한 경관이다. 명나라 때 추즙 등 신료들이 북경 천도를 준비하는 영락제를 호종하던 영락 12년(1414)에 기존 원나라 때 팔경의 편벽됨을 보완하고 당대가 태평성대임을 알리기 위해 짓게 된다.⁸⁾

영락제는 연왕출신으로 즉위 이후 아버지 태조가 남경에 세운 도읍을 북경으로 옮기기 위해 20년 남짓 노력하여 마침내 천도를 이루게 되는데 북경을 도읍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만드는 과정에서 1409년에서 1416년까지 2차례에 걸쳐 신하들을 데리고 북경에 가게 되는데 1414년은 영락제 즉위 후 10여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수창에 참여한 인원은 侍講兼左春坊左中允 鄒緝, 國子祭酒兼翰林院侍講 胡儼 右春坊右庶子兼翰林侍講 楊榮, 左春坊右諭德兼翰林侍講 金善 翰林侍講 曾棨 林環 翰林修撰兼右春坊右贊善 梁潛 翰林修撰 王洪, 王英, 王直, 行儉 中書舍人 王紘, 許翰鳴鶴 등 13명으로 120수의 시를 지었다. 이중 10명은 한림원 소속이며, 3명은 글쓰는 일을 맡은 중서과 소속이다. 이들 역시 영락제가 원나라 옛도읍을 중수하여 새로운 도읍을 만들듯이 원대 팔경의 결점을 고친다고 하였다.

이 중에 <<대명일통지>>에는 胡廣, 양영, 왕홍, 왕영, 추즙, 증계, 김선 등 7명의 시가 실려 있다.⁹⁾ <<대명일통지>>는 성조에 의해 1461년(천순 5)에 90권으로 출판되는데, 이 책이 출판되기 까지 태조 주원장부터 90년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⁰⁾

<<대명일통지>>는

唐《元和郡县志》，北宋乐史的《太平寰宇记》、王存的《元丰九域志》、欧阳忞的《輿地广记》和南宋王象之的《輿地纪胜》、祝穆的《方輿胜览》以及《大元大一统志》 등 지리서를 참조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¹¹⁾ 그러나 가장 근간이 되었던 것은 역시 명대 경태연간에 편찬된 <<환우통지>>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의 80 퍼센트가 <<환우통지>>와 일치되는 <<대명일통지>>를 굳이 만든 이유는 토목보의 변을 겪은 성조의 국가 보안의식과 역시 그로인해 황제가 바뀔으로써 생겼던 자기 중심 중앙집권 구도의 와해를 다잡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일통지'라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전국을 통일적으로 다스리려는 집권자의 의지가 표출되어 있다.

<<대명일통지>>는 <<환우통지>>의 변체성을 비판하여 36 부문으로 이루어졌던 항목을 建置沿革、郡名、形胜、风俗、山川、土产、公署、学校、书院、宫室、关梁、寺观、祠庙、陵墓、古迹、名宦、流寓、人物、古迹、列女、仙释 等 24 门으로 축약하였다.¹²⁾ 또한 군사적인 부문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러한 정치적 필요 및 황제의 너그러움과 위세 과시를 위해 제작된 이 지리지는 이후 명조 지방지의 전범 역할을 하게 된다.¹⁴⁾

경사팔경이 명일통지에 수록된 양상을 보면 별도의 제영조를 설정하지 않고 해당하는 항목에 경사팔경이 추가되는 양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록된 항목과 작가는 다음과 같다.

소표제명	장소	문	조	작가	북경팔경도시서의 순서
태액청과	京師	苑囿	西苑	胡廣	3
경도춘운				왕영	4
서산제설	順天府	山川	서산	왕홍	6
옥천수홍			옥천	왕영	2
금대석조		宮室	황금대	추즙	8
거용첩취		關梁	거용관	증계	1
노구효월			노구교	왕영	7
계문연수		古蹟	계구	김유곤	5

<<명사일통지>>에 소개된 팔경의 대상 및 내용을 보면, 태액청과와 경도춘운은 태액지와 경도가 서원 동북쪽 수려한 만세산에 있다고 한 점 정도로 이 두 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¹⁵⁾

서산제설에 대해서는 먼저 서산이 순천부의 서쪽 30 리 지점에 있으며, 높이 구름에 닿고 궁궐의 오른쪽에서 보필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고 설명하고, 매번 큰 눈이 처음 개고 온갖 봉우리와 골짜기에 쌓인 눈으로 빛나는 모습이 그림같다고 하여 경관의 구체적 모습을 설명하였다.¹⁶⁾

옥천수흥에 대해서는 옥천이 옥천산 동북쪽에 있으며, 넓이는 3 장 정도인데 교통같이 생긴 들에서 샘이 솟는다고 하였다. 샘은 쾌옥소리, 투명한 빛, 달콤한 맛을 갖추고 있으며, 동쪽으로 흘러 서호로 들어간다고 하여 옥천 자체에 대한 설명만 하였다.¹⁷⁾

금대석조에 대해서는 황금대가 순천부 동남쪽 16 리에 있으며 연나라 소왕이 역수 동쪽에 황금대를 쌓고 천하 인재를 모은 일을 따라 건립하였다고 해서 황금대의 위치와 건립 사유만 제시하였다.¹⁸⁾

거용첩취에 대해서는 거용관이 순천부 120 리 북쪽에 있으며 두 개의 높이 솟은 산 절벽이 매우 험난하하고 관의 남쪽에도 산봉우리가 중첩된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여 경관의 구체적인 면까지 언급하였다.¹⁹⁾

노구효월에 대해서는 노구교가 순천부 남쪽 35 리의 노구하에 놓여있는데 금나라 명창 초에 건립되었고 명나라 정통 9 년에 중수되었다. 길이는 200 보이며 돌난간에는 사자모양이 새겨져 있다. 노구교의 연혁과 형태를 제시한 뒤 매일 아침 물결의 빛이 새벽달에 비추어 멋진 여름 경치를 이룬다고 하여 경관도 묘사하였다.²⁰⁾

계문연수에 대해서는 연구는 옛 연나라 성 서북쪽 끝에 있는 옛날 계문으로 누관은 모두 허물어지고 문만 두 짝 남아 있다고 하고 흙둔덕에 숲이 울창하다고 하여 계문의 나무가 절경임을 묘사하였다.²¹⁾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명사일통지에 소개된 팔경은 도성에서 2 경, 순천부에서 6 경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서산제설, 거용첩취, 노구효월, 계문연수 등은 구체적인 경관까지 소개하여 지역 뿐 아니라 지역의 자랑까지 담으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들 지역은 각 경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용첩취- 거용관을 둘러싼 험난한 산세가 중첩되어 있으며, 푸른 빛을 띄고 있음.

옥천수흥- 옥천의 물길이 무지개가 드리운 듯 아름답게 펼쳐짐.

태액청과- 궁궐 서원 태액지에 햇빛 아래 물결이 일고 있음.

경도춘운- 궁궐 서원에 조성된 경도의 위에 봄 구름이 한가하게 떠다님.

계문연수- 옛 도성인 계구 계문에 안개낀 숲이 펼쳐짐.

서산제설- 눈이 개인 후 햇빛 아래 눈 덮인 서산이 펼쳐짐.

노구효월- 노구교에서 밤새 놀고 나니 새벽달이 비취줌.

금대석조- 황금대에 비추는 석양 빛.

3. 팔경 내용 및 형식 특징 비교

조선의 신도팔경시와 명의 경사팔경시는 모두 새로운 도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신도팔경시가 이미 수립된 도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경사팔경시는 시간상으로 50 퍼센트 정도 조성된 수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들은 모두 기존 왕조 혹은 선대 수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천도를 단행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중앙집권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집권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중앙'을 대표하는 공간이 바로 도읍이며 도읍팔경시는 중앙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표상해야 했다. 특히 새도읍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화 및 자기 확신을 위해 당대 유행하는 팔경시를 짓는 일은 중요한 홍보수단을 획득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여기서는 신도팔경시와 경사팔경시의 동이점을 국방, 교화, 표현, 기타 등으로 나누어 비교하도록 하기로 한다.

3.1 국방의 강조

영락제는 홍무제의 변방 정책에 의해 연왕에 봉해졌다가 혜제의 변왕 폐지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며, 1402 년에 즉위한 뒤 천도를 통해 국방을 강화하려 하였으며, 직접적으로 5 차례에 걸쳐 몽고 원정을 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래 원나라 때 팔경시의 첫째는 궁궐 정원인 태액지였으나 경사팔경시의 첫 자리에는 북방에 이르는 관문인 거용관을 들었다.

群山聳列勢崢嶸 나란히 솟은 못 산의 산세 가파르고
日照峯巒積翠明 봉우리에 해비추자 밝게 푸르러지네
高出烟霞通絕塞 높이 솟은 안개놀만 변방 밖과 연결되었고
低回城闕擁神京 성곽은 낮게 둘러 서울을 감쌌구나
休論函谷雙崖險 함곡관과 함께 쌍벽을 이룬다고 하지 말아라
絕勝匡廬九疊橫 여산 멋진 경치 첩첩이 늘어섰으니
扈從常時經此處 황제 호종할 때 늘 이 곳 지나시며
坐看天際白雲生 하늘 저끝 피는 흰구름 보곤하시네

북경팔경도시의 발문을 쓴 양영의 거용첩취이다. 수련에서는 높고 가파른 산세에 해가 비추자 푸른 빛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거용첩취 자체의 모습을 읊었다. 함련에서는 거용관이 북쪽 변방으로는 안개와 노을밖에 통할 수 없게 높이 솟아서 수도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였다. 증계도 수함련을 重關深鎖白雲收 天際諸峯黛色流 北枕龍沙通絕漠 南臨鳳闕壯神州(중첩된 관문은 굳게

잡겨 흰구름만 들 수 있는데/ 하늘가 여러 봉우리 검은 빛을 띄고 있구나/ 북쪽 새외 지역은 막북과 통해있고/ 남쪽으론 궁궐있어 명나라에 우뚝하네)라고 하여 같은 논조로 읊었다. 이처럼 험난하고 궁궐을 지키고 있는 면모는 □대명일통지□ 거용관에서 설명한 거용관의 특징이기도 하다.

경련에서는 거용관을 함곡관에 비유하면서 함곡관처럼 험하지만 함곡관에는 없는 승경이 있으므로 함곡관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미련에서는 황제가 늘 이 곳을 지났다고 했으며 오면 거용관의 멋진 모습을 보곤하였다고 하였다. 김선도 미련에서 北巡記得隨鸞馭 曾上雲間第一峯(북쪽으로 순수할 때 호종하던 일 떠올리니 일찍이 구름 속 가장 높은 봉우리 올랐었네)라고 하여 황제의 발걸음이 상당히 높은 봉우리 까지 미쳤음을 나타내었다.

거용관은 변방 관문이므로 북방의 침략에 대비해 만든 공간으로 늘 전쟁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황제가 늘 이곳에 행차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락제가 국방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영락제는 5 차례에 걸쳐 북방 몽고를 치기 위해 원정하기도 하였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거용관이 험난한 요새지만 동시에 승경임을 드러내어 경관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여 거용관의 경관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성곽이 중요 방위수단이었으며, 조선 건국기 북방 민족의 침입 위협이 있었으므로 도성을 지을 때 국방을 염두에 두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²²⁾ 신도팔경시에서는 기전산하, 도성궁원, 동문교장, 북교목마 등에서 각각 성곽의 웅장함, 군사훈련, 군마육성 등을 노래하여 경사팔경시에 비해 국방에 대해 다양하게 노래하였다.

沃饒畿甸千里 기름지고 풍요한 기전(畿甸) 천리 땅에,
表裏山河百二 안팎의 산하(山河)는 천해 요새네

城高鐵甕千尋 성은 높아 철옹(鐵瓮)인데 천 길이요,
雲繞蓬萊五色 구름은 봉래산 둘렀는데 오색일세.

앞 수는 정도전의 작품으로 기전산하, 도성궁원 등의 기승구이다. 기전산하 승구의 백이는 백명의 적을 두 명이 막을 수 있다는 요새라는 뜻이고 도성궁원 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도성이 철옹성이라고 하여 국방을 위해 지어졌음을 드러내었다.

天作鴻都壯 하늘이 지은 도성 웅장한지고
雲橫雉堞開 구름 비긴 곳에 치첩 열었다
觚稜金碧鬱崔嵬 단청한 전각 지붕 웅장도 한데
劍佩此徘徊 칼 찬 관인들이 여기 오간다

이 시는 권근의 도성궁원으로 제 1 구에서는 도성이 웅장하다 하였고 제 2 구에서는 성곽의 치첩이 구름을 닿을 정도로 높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제 4 구에서는 병사들이 칼을 차고 성곽을 방위하고 있다고 하여 도성의 철통같은 경계를 보여주었다.

地勢平如掌 지세는 평평하여 손바닥 같은데,
軍容迅若雷 군용(軍容)의 신속함 우레 같네
鼓行金止幾番回북치면 나가고 징치면 그치기 몇 번이나 되풀이했나,
萬騎共徘徊 일만 기병 오고감이 똑같네.
善陣精明術 진치는 것은 정명(精明)한 기술이고
摧鋒勇決才 적의 기세 꺾는 것은 용결(勇決)한 재주일세.
能令敵國自降來이만하면 적국들 스스로 항복해 오게 할 것이니,
預養豈徒哉 미리 병사를 양성함 어찌 부질없다 하리.

권우의 동문교장이다. 제 1,2 구에서는 평평하게 잘 다져진 훈련 교장에서 신속하고 기세좋게 훈련하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제 3,4 구에서는 북과 징소리에 따라 수도없이 훈련하여 일만 기병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칭송하였다. 제 5,6 구에서는 진치는 훈련과 적을 위축시키는 훈련도 받고 있다고 하였고 제 7,8 구에서는 이렇게 훈련된 병사들이 있음을 알면 적이 저절로 항복할 것이라고 하여 이러한 훈련이 부질없는 연습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권근은 북교목마 5,6 구에서 走坂蹄生電 嘶風鬣舞煙(언덕에 달리는 굽 번개 치는 듯 바람에 우는 갈기 연기에 춤춘다)라고 하여 전쟁에 대비해 준마를 기르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국방에 대하여 경사팔경시가 거용첩취 단 1 경에 그친 데 반해 신도팔경시는 기전산하, 도성궁원, 동문교장, 북교목마 등 4 개 경에 걸쳐서 읊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방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3.2 왕의 덕화와 성리학의 교화

왕의 교화가 세상에 펼쳐져야 한다는 것은 성리학에서 제시한 치국 평천하의 이치이다. 이 때 왕을 호종한 신하들은 옥천이 흘러 서해로 들어감을 보고 이를 왕화가 미치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눈이 쌓여있는 모습에서 풍년예의 기대를 담았다.

迢迢終見歸滄海 흘러흘러 마침내는 넓은 바다로 돌아가리니
萬物皆資潤澤功 세상만물 모두다 은택하게 하는 은공 입히네

왕영 옥천수홍의 미련이다. 옥천이 흘러서 바다로 가면서 세상만물에게 은택을 입힌다고 하여 걸으로는 옥천의 모습을 읊었지만 내면적으로 황제의 은택이 세상만물에 고루미침을 표현하였다 할 수 있다. 양영 역시 옥천수홍 미련에서 汪洋長比恩波 關 萬古東流會百川(도도하게 멀리 흘러감이 은택물결 흘러 예전부터 동으로 흘러 모든 냇물이 만나는 것처럼) 여기서 황제가 백성에게 내리는 은혜를 ‘은파’라고 하였는데 이 표현은 김선도 썼다. 김선 옥천수홍의 미련을 보면 源源自是歸滄海 添作恩波遍九埏(이로부터 흘러내려 바다로 돌아가니 보태진 聖恩 물결 은천하에 펼쳐지리) 라고 하여 은 중국에 황제의 은혜가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양영의 경도춘운에서 명확해 지는데 경도춘운의 미련을 보면 從龍處處施甘澤 四海謳歌樂治平(용을 따라 도처에 은택이 베풀어지니 은 천하에서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데 대해 노래하네) 여기서 용은 황제를 가리키고 황제가 도처에서 내리는 성은으로 사해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노래한다고 하였다.

이런 임금의 은택으로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는데 왕홍은 서산제설의 미련을 보면 靑瑣朝回頻極目 都將郢曲詠年豐(대궐문 조회하고 오며 자주 저끝까지 보는 것은 수도에서 풍년을 노래하는 노래를 바치겠기에) 민간에 눈이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 시에서는 수련에서 눈이 개인 후 해가 높은 봉우리를 비취고 옥같은 나무에 빛에 반사된 눈으로 빛을 내면서 허공 중에 있는 쌓인 눈위로 비치는(日華初上最高峯 玉樹凝輝在半空) 햇빛을 보면서 사대부로서 국가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경사팔경시에서는 황제의 덕화만 칭송했다면 신도팔경시에서는 서민을 위한 임금과 관리의 노력이 필요함을 노래했는데 이는 성리학의 가르침에 따른 위정자의 자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서민들도 노인을 공경하고 젊은이가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기전산하, 열서성공, 남도행인 등에 나타난다.

夜直消銀燭 밤숙직맨 촛불 켜고,
晨趨動玉珂 새벽 조회 길엔 굴레장식 울리누나
丹青王化德無瑕 빛나는 우리 임금의 교화 덕에 티 없으니,
也合沐恩波 이 백성들 은혜의 물결에 젖었어라

권우의 열서성공 후반부이다. 제 5,6 구에서는 밤깊도록 또 새벽같이 근무하는 신하들의 근면함을 노래하였다. 제 7,8 구에서는 이런 신하들의 뒷받침 위에 임금의 교화가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하들의 근면은 이미 정도전이 같은 경에서 月曉官街如水

鳴珂不動纖塵(달 밝은 새벽 거리는 물같이 고요한데, 굴레장식 올려도 작은 티끌 일지 않네.)라고 읊은 바 있다.

한편 권우는 기전산하에서 吾王修德慎初終 鴻業永無窮(우리 임금 덕을 닦아 시종 여일 조심하니, 크나큰 왕업(王業) 길이 무궁하리라)라고 하여 왕 역시 부지런히 덕을 닦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왕이 베푸는 덕화의 내용이 성리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南渡之水滔滔 남쪽 나루터에 물결 도도(滔滔)한데
行人四至鑣鑣 행인들 사방에서 모여들어 분주하네.
老者休少者負 늙은이 쉬고 젊은이 짐 지고서,
謳歌前後相酬 즐거운 노래 앞뒤에서 주고받네

정도전의 남도행인이다. 이 경의 주제는 도성의 번성함으로 제 1,2 구에서는 도성 남쪽 한강의 어느 나루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양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3,4 구에서는 노인과 젊은이가 성리학의 가르침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고 젊은이가 일을 도맡으면서 즐거워하는 양상을 그렸다. 도성의 번성함 속에 성리학의 교화가 백성에 까지 미치고 있음을 드러낸 시인 셈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경사팔경시의 옥천수흥, 서산제설이 샘의 유로와 눈의 징조처럼 왕의 덕화와 풍년으로 인한 서민의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신도팔경시의 기전산하, 열서성공, 남도행인에서 보여주는 교화와 번성은 성리학의 가르침을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부지런히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3.3 선계의 승경과 도읍의 문명화

필자는 위에서 소상팔경을 전범으로 삼는 팔경은 승경이면서 이상향이라고 한 바 있다. 경사팔경에도 이와 같은 요소가 남아 있는데 특히 궁중 정원인 서원의 태액지에 대해 그런 면모가 나타난다.

渺渺晴波漾碧池 끝없는 물결 해에 비쳐 푸른 연못에 넘쳐 흐르고
淸風時動綠漪漪 맑은 바람 마침 불어 푸르게 물결지는데
銀潢星斗垂天派 은하수 별들이 높은 하늘에 드리워져 있고
方丈龜龍陋漢儀 방장산 신성한 동물들은 세상 격식에 맞지 않네
玉鏡光搖瓊島近 옥같은 달 빛이 경도 가까이 비추니
錦紋流出御溝遲 비단 무늬 흘러나와 정원 물길로 완만하게
從知涵浸由開闢 이제 알겠네 세상이 열렸을 때부터 흘러 넘쳐

長暎西山影不移 길게 비추는 서산 그림자를 옮기지 않았음을

이 시는 호광의 태액청파이다. 수련에서는 태액지가 매우 광대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물과 바람 햇빛이 조화롭게 어울려 승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모습을 읊었다. 함련에서는 이 태액지가 하늘의 별, 신선 세계에 어울리는 존재라고 하였다. 양영도 태액청파의 미련에서 蓬萊咫尺滄溟上 瑞氣縈緝接上台(봉래산 가까운 바다위에/ 상서런 기운 자욱히 상태성에 이어있다)고 하여 선계와 연결한 바 있다. 경련에서는 실제 태액지와 함께 경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읊었으며 미련에서는 이 태액지가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신령하고 성스러운 공간임을 드러내었다.

김선은 태액청파의 미련에서 從知弱水通三島 應有羣仙獻壽來(약수가 삼도에 통했음을 알겠으니 응당 못 신선들이 장수를 축하하러 문안오리) 선계에서 황제의 장수를 기원하러 온다고 하여 선계의 면모를 살리되 속세의 황제와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서기가 서린 장소는 바로 경사 자체이기도 하다. 김선은 계문연수에서 연왕의 성곽이었던 계문의 승경을 읊으면서 왕경의 상서러움을 칭송했는데 시는 다음과 같다.

野色蒼蒼接薊門 들판은 푸르게 계문에 이어졌고
淡烟疎樹碧網緝 성긴 숲에는 맑은 연기 자욱해서 푸르르다
過橋酒幔依稀見 다리 지나 주막 깃발 희미하게 보이는데
附郭人家遠近分 성곽 근처 인가들은 여기 저기 흩어있다.
翠雨落花隨處有 봄비에 떨어진 꽃 곳곳에 놓여있고
綠陰啼鳥坐來聞 녹음속에 새 우는 소리 앉아서 듣는데
玉京近日多佳氣 요즘 도읍지엔 서기가 풍부해서
縹緲還看映五雲 멀리 있음에도 오히려 오색구름 비쳐주네

수련에서는 계문연수의 경관을 묘사하였으며, 함련에서는 평화로운 마을과 주막을 읊어 술을 마시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고 경련에서는 봄비로 꽃 지고 새우는 정겨운 정취를 읊었다. 미련에서는 도읍지의 서기가 계문 하늘의 구름에 까지 온다고 하여 도읍지로서의 면모를 평가하고 결국 이와 같은 승경과 평화로운 모습들이 모두 황제의 은택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신도팔경시에서 선계의 모습을 보이는 시로는 정도전의 도성궁원을 꼽을 수 있다.

城高鐵甕千尋 성은 높아 철옹(鐵瓮)인데 천 길이요,
雲繞蓬萊五色 구름은 봉래산 둘렀는데 오색일세.
年年上苑鶯花 해마다 상원(上苑 어원(御苑))에는 피꼬리와 꽃인데,

歲歲都人遊樂 해마다 서울 사람들 놀며 즐기네

제 1 구에서는 국방을 주제로 했으나 제 2 구에서 북악산을 선계의 대표적 산인 봉래산에 견주었으며, 언제나 궁궐 정원이 아름다워 그 속에서 유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도팔경시는 이미 기전산하, 도성공원, 열서성공, 제방기포 등에서 수직적 질서를 동서남북의 다른 네 경에서 수평적 질서를 제시하여 질서있게 구획된 도성의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제방기포, 서강조박 등에서 도성의 변성한 모습을 제시하였다.

錯落閭閻密 일기설기 여염집 조밀하고
縱橫道路分 이리저리 도로가 나뉘었네.
千車萬馬自成羣 천만 수레와 말들 스스로 떼지어,
來往互紛紛 오고가기 어찌 그리도 분분한가.
市賈日中聚 저자의 장사치 온종일 모이니,
街鍾風裏聞 거리의 종소리 바람 속에 변화한 것 알려주네.
繁華一代正修文 이 시대는 문화를 펴는 때라,
城闕藹祥雲 대궐에 상서로운 구름 항상 영기누나.

권우의 제방기포이다. 제 1,2 구에서는 구획된 도로 옆에 기와집들이 뽁뽁하게 늘어서 있음을 묘사하고 있고 제 3,4 구에서는 그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레와 말이 분주하게 오고가고 있다고 하였는데 수레와 말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 타고 다니거나 많은 물화를 싣고 옮길 수 있으며 또 빨리 옮길 수 있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문물의 번성함을 묘사한 것이다. 제 5,6 구에서는 운중가의 시장의 변화한 모습을 읊고 있다. 제 7,8 구에서는 이러한 변화함이 시대의 표상이요 임금의 은혜라고 마무리 하였다. 국가적으로 문화의 번성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백성들도 그 혜택을 누린다는 말이다.

南海恬風浪 남해에 물결이 잔잔해지니
西江簇畫船 서강에 배들이 몰려들었다
烏檣櫛立蔽雲天 돛대가 빗살처럼 촘촘히 섰고
委積與山連 물화가 산같이 쌓이어 있다
紅腐千倉粟 창고마다 곡식이 발갱게 썩고
靑生萬戶煙 집마다 연기가 파랗게 난다
公私富足各安然 온 나라 풍족해서 편케 지내니
王業永綿綿 왕업이 길이 먼먼하리라

권근의 서강조박이다. 제 1,2 구에서는 남방의 물산이 한강 서강에 몰려든다고 하고 제 3,4 구에서는 몰린 배의 돛대가 빗살같고 물화가 산같다고 국가적으로 거뒀을 수 있는 세수가 풍부함을 나타내었다. 제 5,6 구에서는 곡식이 창고마다 썩어나가고 집마다 밥짓는 연기가 난다고 하여 이러한 물화의 성대함이 국가에만 몰리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지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제 7,8 구에서는 이러한 풍족함이 바로 왕업 지속의 전제임을 제시하였다.

경사팔경시가 태액청과, 계문연수 등에서 도성을 여전히 승경으로서 선계처럼 묘사한 반면 신도팔경시에서는 번성한 도성에 초점을 두었는데 신도팔경시 창작 시점이 도읍 초임을 고려할 때 이는 실제 도성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이뤄나가야 할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강조박에서 보듯이 세수가 안정되게 들어오고 백성들이 편안해야 왕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여 왕에 대한 강한 권면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도팔경시는 선계보다는 문명화된 도읍을 지향하여 지어진 시라 할 수 있다.

3.4 인재 초빙과 천년 왕업

금대석조와 노구효월에서는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에 대한 소망을 담았는데 먼저 경사팔경을 주도한 추즙의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高臺百尺倚都城 대는 높아 백척으로 도성에 기대어 있고
 斜日蒼茫弄晚晴 지는 햇빛 멀리 퍼져 저녁하늘에 펼쳐졌다
 千里江山迴望迥 천리 강산 두루두루 멀리 바라보니
 萬家樓閣入空明 모든 집과 누각은 하늘에 접해있는데
 黃金尚想招賢意 황금대에서 여전히 어진이 모았던 뜻 생각하니
 白髮難勝慨古情 백발을 견디기 어려워 옛 생각에 강개해 진다
 看盡翩翩歸鳥沒 새들이 훨훨 날아 보이지 않을 때 까지 보니
 古原秋草暮雲平 옛동산 가을 풀들은 저문 구름 아래 펼쳐졌네

이 시는 금대석조로 수련은 황금대에 석양이 지는 승경을 그리고 있다. 함련에서는 세상 거기서도 집과 누각 등 속세의 건물 위로도 석양이 덮여져 있음을 그렸고 경련에서는 황금대가 인재를 모으기 위해 만들었던 곳임을 떠올리면서 자신도 예전에는 그렇게 선발되었는데 이제는 늙어 젊었을 때에 대한 생각에 견디기 어렵다고 하였다. 미련에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평화롭게 저무는 자연 풍경을 읊었다.

이 시는 늙은 신하로서 이제 인재로 뽑히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지만 역시 하루의 끝인 석양을 맞아 평화롭게 저무는 자연을 보면서 늙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이 수창에 참여한 인물들이 황제의 인정을 받아 모두 인재로 발탁되었기 때문이다. 양영은 금대석조 미련에서 却笑當時空買骨 只今才駿總龍媒(당시에 부질없이 말뼈 산 일 비웃는 건 지금 천리마는 모두 성은 입었기에)라고 하여 옛날 연나라 소왕이 죽은 말을 비싼 돈으로 사서 뒤에 좋은 말들을 많이 얻었다는 고사를 부질없는 일이라 비웃고 지금은 이미 좋은 말 즉 인재가 모두 황제의 발탁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중용은 노구효월시에도 보이는데 특히 노구효월시는 한림원 소속원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은 千古長橋枕南北 憶曾題桂倚闌干(천년된 긴 다리 남북으로 걸쳐있는데 난간에 기대어 일찍이 황제에게 알아줌 받았던 일 생각하네)라고 하여 노구교에서 황제가 알아준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황제에 대한 고마움을 노래했다. 양영은 北上已看京闕近 五雲深處是金鑾(북으로 올라와 이미 대궐 근처를 보니 오색구름 서린 깊은 곳에 한림원이 있네)라고 하여 경사의 궁궐을 짓는 일로 황제를 호종하고 와서 자신들이 소속될 거처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경사팔경시의 금대석조와 노구효월이 새도읍에서의 인재초빙의 필요성 그리고 이 시를 창화한 한림원 구성원들이 바로 인재임을 역설하고 있는데 신도팔경시의 열서성공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天門冠蓋藹如雲 천문에 구름같이 모여든 관개
濟濟佐明君 훌륭한 선비들 밝은 임금 보좌하네
庶政皆凝績 정사는 모두 공을 이루고
英材惣出群 인재도 사람마다 뛰어났구나

권근의 열서성공의 3~6 구이다. 3,4 구에서는 궁궐에 관개를 얻고 구름같이 모여든 존재가 임금을 보좌하는 훌륭한 선비들하였고 5,6 구에서는 이들이 모두 뛰어난 인재들이요 정사에서 공을 이루었다고 칭송하였다.

그러나 신도팔경시에서는 이러한 인재의 문제보다는 신도 수립의 궁극적인 과제인 왕업의 영원함을 노래한 경우가 더 많다.

四境邦畿遠 사방으로 나라 터도 멀고,
千年地理雄 천년 왕조에 지리도 웅장하구나.
山河設險出天工 강산에 험요(險要)한 곳 조물주의 조화인데,
建國此營功 나라 세우고 여기에 경영하였네.

虎踞龍蟠處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서린 듯한 그 고장에
 雞鳴狗吠中 닭의 울음개 짚는 소리 들리누나.
 吾王修德愼初終우리 임금 덕을 닦아 시종 여일 조심하니,
 鴻業永無窮 크나큰 왕업(王業) 길이 무궁하리라.

권우의 기전산하이다. 제 1,2 구에서는 넓은 국토를 천년 동안 지켜줄 웅장한 곳이어 있다하고 제 3,4 구에서는 그곳이 바로 새로운 도읍터요 새로운 국가라고 하였다. 제 5,6 구에서는 그렇게 웅장한 곳이지만 가축인 닭과 개의 울음 속에 있다하여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음을 비유하였으며, 왕이 성리학의 교화를 닦아 나가면 왕업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여 왕업의 영원성을 기원하였다.

德教得兼形勢 덕과 교화로 땅의 형세까지 겸하니,
 歷年可卜千紀 역년(歷年)이 천 년을 가리라.

정도전의 기전산하 제 3,4 구이다. 정도전은 이 경 제 1,2 구에서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제 3 구의 덕과 교화와 함께 이들은 모두 제 4 구에서 제시한 천년왕업의 수단일 뿐이다. 권근도 서강 조박 7,8 구에서 公私富足各安然 王業永綿綿(은 나라 풍족해서 편케 지내니, 왕업이 길이 면면하리라)라고 하여 영원한 왕업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도팔경시에서는 경사팔경시에서 강조한 인재초빙도 거론했지만 왕업의 영원함에 대한 기원을 궁극적인 주제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3.5 전대와의 비교

경사팔경은 금나라 때 시작되었고 원나라 때 유행하였는데 팔경시는 원나라 때 최초로 지어졌다고 한다. 원나라 진부의 <陳剛中詩集>에 실린 <詠神京八景>과 명나라 양영의 문민집에 모두 7언율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 소표제 순서 및 변경 양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원 진중강집	명 문민집	소표제 변경
1	태액추풍	거용첩취	
2	경도춘음	옥천수흥	
3	거용첩취	태액청과	태액추풍-> 태액청과
4	노구효월	경도춘운	경도춘음-> 경도춘운
5	서산청설	계문연수	계문비우-> 계문연수

6	계문비우	서산제설	서산청설-> 서산제설
7	옥천수홍	노구효월	
8	금대석조	금대석조	

명나라와 원나라의 경사팔경 차이는 경사와 순천부로 이루어진 팔경에서 원나라는 경사의 팔경 다음에 순천부의 팔경을 읊은 반면 명나라는 거의 북쪽 경관을 먼저 읊고 차음 남쪽 경관을 읊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나라 시가 북방에 대한 국방 문제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소표제를 보면 순서는 금대석조 외에 모두 바뀌었고 경점은 그대로나 4 개의 경색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진부는 포의로 <<대일통지>>를 올린 문인으로 시집 3 권을 지었는데 그중 이 팔경시는 권 1에 담겨 있고 이는 1292년 이전 작품들이므로 팔경시 역시 이 이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²³⁾

誰憐羈客家萬里 누가 집에서 만리 떨어진 나그네 불쌍히 여기랴
一燈孤擁寒衾愁 등불하나 외롭게 잡고 찬이불에 시름하네

이 시는 계문비우의 미련이다. 계문에서 고향 생각하며 시름에 잠겨 있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자신을 형상화하였다.

琪樹颺紅鯉躍 보배나무에서 바람불고 붉은 잉어 뛰노는데
袞龍正宴瑤池仙 황제가 내린 잔치 요지연 선계갈에

이 경은 태액추풍의 미련이다. 기수나 홍리가 모두 선계의 생물이거니와 임금의 잔치가 요지연과 같다고 하여 선계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었는데 이는 경도춘음의 경련에서도 나타난다. 萬年枝上榭葉滿 小鸞振振遶龍管(만년 가지 위에 곡엽이 가득하고 난새들은 나란히 대궐을 돌렀네) 라고 하여 만년가지, 난새 등 선계의 사물들이 궁궐을 돌렀다고 하여 이 궁궐이 바로 선계임을 그렸다. 이처럼 진부는 나그네의 입장에서 한적한 정취와 선계로서의 면모를 읊고 있어 도읍으로서의 면모를 거의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다. 더욱이 거용첩취의 미련에서는 征鴻一聲起長空 風吹草低山月小(원정가는 기러기 한 소리 하늘에서 일어나니 바람 일어 풀은 눕고 산과 달도 작아지네)라고 하여 명나라가 방어하는 입장보다는 원나라가 점령하는 면모를 칭송하고 있어 이 시인이 중국을 점령한 원나라 시인임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4. 경사팔경시의 전래

현대에 전하는 경사팔경에는 비문이 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건륭제가 1751 년(건륭 16)에 조성한 것이다. 건륭제는 두 차례에 걸쳐 팔경시를 지었으며 이는 <<흠정일하구문고>>에 실려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원 진중강집	명 문민집	청 1 흠정일하구문고	청 2 건륭	명과 청 2 비교
1	태액추풍	거용첩취	경도춘음	경도춘음	경도춘운-> 경도춘음
2	경도춘음	옥천수홍	태액추풍	태액추풍	태액청과-> 태액추풍
3	거용첩취	태액청과	옥천수홍	옥천표돌	옥천수홍-> 옥천표돌
4	노구효월	경도춘운	서산청설	서산청설	서산제설->서산청설
5	서산청설	계문연수	계문연수	계문연수	
6	계문비우	서산제설	노구효월	노구효월	
7	옥천수홍	노구효월	거용첩취	거용첩취	
8	금대석조	금대석조	금대석조	금대석조	

청나라 건륭제의 시는 명나라 시보다는 원나라 시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계문연수에 있어서 명나라 시를 따랐으며, 옥천표돌은 독창적으로 개명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팔경시를 쓰고 또 각 경마다 비를 세우고 후면에 자신의 시를 새긴 것으로 보아 건륭제가 팔경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원나라 진부와 마찬가지로 선계로서의 면모를 잃었지만 황제로서 인재 및 농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특히 옥천수홍에 대해서는 수홍의 면모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하여 옥천표돌로 개명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거용첩취에 대해서도 변방 관문의 면모보다는 발농사 짓던 평화로운 공간으로 노래하여 여진족의 후손임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에서도 경사팔경시가 많이 창작되었는데 소표제를 볼 때 오로지 명나라 경사팔경시를 지었을 뿐 원나라 팔경시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청나라 건륭제의 시도 따르지 않았는데 시기적으로 건륭제보다 앞선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승소(1422-1484) 次北京八景詩 a_011_453c 1459 년

김지수(1585-1639) 燕都八景 b_021_516a

김상헌(1570-1652) 燕都八景 a_077_136a

박세당(1629-1730) 淸陰金相國有燕臺八景詩。效作。 a_134_018c

이이명(1658-1722) 燕京。次杜工部秦州雜詩。 a_172_066b

이의현(1669-1745) 詠燕都八景十五疊 a_180_386d 陶谷集卷之三

가장 먼저 팔경시를 지은 이승소는 세조 즉위 후 원종공신에 책봉된 공신으로 예종 때에는 예조참판으로 명나라와의 외교사무를 관장하였고 좌참찬까지 오른 인물이다. 1480년 주문사의 부사로 명나라에 갔을 때 서사에서 대명일통지를 보고 이에 차운하였다고 한다.

내가 북경에 이르러 대명일통지를 사려했었는데 책방에서 한질을 구하였다. 읽어보다가 여러 학사가 지은 북경팔경시를 보니 운유하고 우아하여 옛 작가의 뜻이 남아 있었다. 내가 한 숙소에 머물러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밖을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 팔경을 비록 찾아볼 수 없고 눈으로만 읽어볼 뿐이었으나 시를 통해 그 풍경을 유추한다면 만에 하나는 비슷할 수 있겠으므로 드디어 그 뜻에 의거하여 차운한다.(予到北京 求買大明一統志 得一件于書肆 披閱之餘 見諸學士北京八景詩 溫柔雅麗 有古作者之遺音 予塊處一館 動有拘礙 未得跬步出門外 其於八景 雖未能足履而目擊 然因詩以求其風景 則亦可彷彿其萬一 遂次韻以攄其志)

1481년에 출판된 동국여지승람이 대명일통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1480년에 이를 서사에서 찾고 또 내용을 차운하는 양상을 볼 때 당시 대명일통지는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참여한 일부에게만 제공되었고 당시 판서 반열에 있던 그도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중국서적이 조선에서는 매우 귀하었음을 보여준다.

김상헌이 연도팔경을 지은 것은 1627년(인조 5) 58세로 성절겸사은진주사가 되어 북경에 가서 예부에 모문룡이 우리나라를 무고한 일을 진달하였을 때이다. 당시 서장관이었던 김지수가 쓴 시에 대해 화운하였다.²⁴⁾

김상헌 거용첩취에서는 변방을 제압하는 기세를 읊었고 ²⁵⁾ 눈 뒤의 풍년에 동조했다.²⁶⁾ 그러나 금대석조에서 인재초빙의 문제보다 그렇게 초빙되어 두각을 나타냈던 영웅호걸들이 무덤에 묻히고 그 무덤마저 퇴락하여 석양에 비취는 모습을 쓸쓸하게 읊었고 계문연수에서는 계문의 나무들이 태평성세의 흔적으로 남았다고 하여 당대 명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엿보게 하였다.²⁷⁾ 1668년 명나라 북경이 아닌 청나라 북경에 서장관으로 다녀온 박세당은 김상헌의 팔경시에 차운하여 명나라에 대한 강개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이명은 영조를 추대했던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 1720년 숙종이 승하했을 때 고부사로 연경을 갔을 때 이 시를 지었다. 이이명의 이 시는 두보의 시를 차운한 오어율시로 몇 편에는

시에 대한 설명을 부가했으며 원나라 시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경도춘운에 첨부된 내용이다.

瓊島在太液池傍。金人始築而名之。元時改萬歲山。明仍之。又稱煤山。金末。望氣者言。塞外一山有王氣。金人乞取此山土。以鎮壓之。元主笑而許之。乃發卒掘其土。又取艮嶽文石。築此山宣和。艮嶽嘗貢雲。皇明天啓間。此山嘗有五色雲氣。春日尤蔥蘢可愛。八景。初謂春陰。明時改謂春雲。

경도가 금나라, 원나라에 걸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력 및 이에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경도춘운의 원나라 때 제목이 경도춘음이라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이이명은 이 시를 지을 때 원나라 시도 참조했음을 알 수 있는데 결국에는 청나라 연경에 가서 원나라 시를 참조하면서 명나라 팔경시를 당나라 시인의 운에 맞춰 지은 셈이다. 두보는 우국강개한 대표적 시인으로 평가되거나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이명 역시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강개함을 바탕으로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의현은 이이명과 동시대를 산 인물로 경종이 즉위한 1720년 그리고 1732년(영조 8) 두 차례에 걸쳐 청나라에 가는데 그 중 한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팔경을 소개한 뒤에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嗟余一莫賞 아아 나는 하나도 감상하지 못하고
鎖館符墮甕 숙소에 갇혀 독에 빠진 듯하구나
鬱鬱氣未展 우울한 마음 펼치지 못하니
岑岑頭欲痛 점점 더 머리가 아프려 하는구나
但解作詩歌 다만 시를 지어 풀려고 하다
長吟錯短韻 긴 노래를 짧게 잘못 지었구나

각 경을 5언 2구 10자로 소개하고 있어 소표제를 푸는 정도에 그치고 있거나와 이를 지은 이유가 정작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고 팔경을 구경하고 싶었으나 단 한경도 구경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생긴 우울함을 시로 달래려 했으나 시도 잘못이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멸망한 명에 대한 강개함보다는 이를 구경 못하는 개인의 심사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후 경사팔경시는 지어지지 않은 듯하다. 다만 건륭제의 창작이후 연경을 찾은 조선문인들은 계문연수 등 본인들이 직접 찾아 간 특정 경에 대한 건문을 기록하면서 팔경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그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사팔경시는 청나라 건륭제로 그리고 조선의 문인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건륭제는 명나라의 경사팔경보다는 원나라의 신경팔경을 본받으려 했으며, 그

중에서 계문연수처럼 적절한 것은 명나라 것을 따르고 잘못된 것은 독자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로 볼 때 건륭제는 명보다 원을 그리고 원보다 청을 중심에 두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경사팔경시는 이승소에게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차운은 정사 김상헌과 서장관 김지수가 북경을 찾은 1627 년으로 청나라가 득세하고 명나라가 쇠퇴하는 시기였다. 그러므로 경사 팔경시는 대개 강개한 뜻을 담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신은 박세당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이명 역시 같은 정서를 공유하였다. 그러나 이의현에 와서 경사팔경시는 구경가지 못하는 사신의 답답함을 달래는 소재 정도로 전락하게 되며 마침내는 더 이상의 차운시가 지어지지 않게 된다.

5. 결론

본론에서 신도팔경시의 차운 양상에 대해 논하지 않았으므로 보충한다면 신도팔경시는 조선후기에도 궁궐에서 지어 도읍의 번성함과 왕조의 무궁함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경사 팔경시는 명나라 때는 원나라 북경팔경시의 대척적인 위치에서 왕화칭송의 도구로 활용되었으나 명나라 멸망 이후에는 청나라에서나 조선에서나 명맥은 유지하되 도읍지로서의 문명성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소상팔경시처럼 승경과 선계를 우선시하는 팔경시로 회귀하거나 멸망한 나라에 대한 시인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소재가 되었다. 이는 명나라의 멸망이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팔경시의 기본적 특징이 문명성이 아닌 자연성, 선계 등 이상경에 대한 동경에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 심경호, 「국토산하를 노래한 한국한시의 미학적 전통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硏究□ 제 18 집, 韓國漢文學會, 1995. 78 쪽

2) 한국의 소상팔경에 대해서는 전경원이 <소상팔경시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맥락 연구>(건국대학교 박사논문, 2006)에서 잘 정리하였다.

3) 한국에는 고려시대 명종이 당대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또 이인로, 진화 등 당대 문인에게 팔경시를 짓게 하였으며, 이는 문인의 성사로 이후 이규보, 이제현, 이색 등 고려시대 대표적 문사들도 모두 소상팔경시 창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4) 조선전기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 역시 당대의 화가에게 소상팔경도를 그리게 하고 조선전기 문화의 주역인 집현전 학사를 비롯한 당대 문인들에게 팔경시를 짓게 하였다. 이때 이인로와 진화의 시를 첨부하여 명종대의 성사를 재현하였다. 안평대군소상팔경시첩의

서문을 지은 이영서는 소상팔경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상의 속된 기운을 벗어난 깨끗한 기상

- 5) 일본도 팔경이 지어지지만 위 두나라처럼 전국적이지는 않았던 듯하다.
- 6) 태조가 한양에 도읍하였으나 정종대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는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도읍으로서 불안정성이 노정되어 있었다.
- 7) 약장인 정도전의 <신도가>, 하륜의 <신도형승곡>이 있었으며, 경기체가인 권근의 <상대별곡>, 변계량의 <화산별곡>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 4 권 2 권, 지식산업사, 2005.
- 8) 聖天子 龍飛於茲 肇建北京 為萬方會同之都 車駕幾載巡狩 而文學之臣多列扈從侍講兼左春坊左中允鄒緝仲熙獨曰 昔之八景 偏於一隅 猶且見於歌詠 吾輩幸生太平之世當大一統文明之運 為聖天子侍從之臣 以所業而從遊於此 縱觀神京 鬱葱佳麗 山川草木衣被雲漢昭回之光 而昔與今 又豈可同觀哉 烏可無賦以播於歌誦 衆咸曰然 遂命曰北京八景間更其題一二 仲熙作詩為倡(양영 북경팔경도시서)
- 9) 현재 양영의 □문민집□, 김선의 □김문정집□ 등에 온전한 팔경시가 수록되어 있다.
- 10) 명태조 주원장은 1370 년(홍무 3 년) 위준민 등을 시켜 <대명지서>를 편찬하게 하였고, 1373 년(홍무 6 년) 천하 주군현의 산천 험이도를 그리라 하였으며, 1384 년에는 <대명청류천문분야서> 24 권을 편찬하게 하였으며, 1394 년(홍무 27)에는 전국의 교통도로를 담은 <황우통구서>를 그리고 이듬해에는 ~등이 포함된 <홍무지서>를 편찬하였다. 명성조는 1418 년(영락 16 년) <천하군현지>를 편하였다. 1449 년(정통 14 년) 일통지만드는 일을 계속하여 1456 년(경태 7) <환우통지> 119 권를 간행하였다. 이어서 1458 년(천순 2)에 <환우통지>가 자세하고 간단함이 마땅치 않고 버리고 취함이 적당치 않다고 하고 이부상서 이찬 등에게 <대명일통지>를 편찬하게 하였다. 张英聘, 论《大明一统志》的编修, <<中国地方志>>, 2008.4
- 11) 앞 논문 " 二、明一统志的编修体例"에서 <대명일통지>가 이전 지리지를 따르고 발전시켰다고 하였다.
- 12) <<환우통지>>의 부문은 建置沿革、郡名、山川、形胜、风俗、土产、城池、祀典、山陵、宫殿、宗庙、坛馆阁、苑囿、府第、公廡、鉴学、学校、书院、楼阁、馆驿、堂亭、池馆、台榭、桥梁、井泉、关隘、寺观、祠庙、陵墓、古迹、名宦、迁谪、留寓、人物、科甲、题咏等门类 等 38 门으로 되어 있다.
- 13) <<환우통지>>에서는 지역 서술 순서가 경사, 순천부, 북직예, 남경 응천부 남직예, 절강, 강서 복건 순으로 되어 있어 경계가 활성화된 남쪽 지역을 우선시켰다면 대명일통지에서는 경사, 순천부, 북직예, 남경 응천부 남직예, 산서 산둥 요동도사 순으로 되어 있어의 군사적으로 중요한 북쪽 지역을 우선시켰음을 보여준다.(유위. <환우통지적가치급기결함>, 섬서사범대학 석사논문, 2005. 22~23 쪽)

- 14) 장영빙은 <<대명일통지>>의 의의로 중국을 하나로 통괄한다는 정치이념, 명대 국가에서 편찬하는 지방지의 제도를 나타내어 지방지의 전범을 들었다. ,
- 15) 苑之東北有萬歲山高聳明秀蜿蜒磅礴上插霄漢 曠宮闕皆禁中勝境也
- 16) 西山在府西三十里舊記太行山首始河內北至幽州第八陁在燕强形鉅勢争奇擁翠雲從星拱於皇都之右 每大雪初霽千峯萬壑積素凝華若圖畫然
- 17) 玉泉在玉泉山東北泉出石罅間因 鑿石為螭頭泉從螭口噴出鳴若雜佩色若素練味極甘美瀦而為池廣 三丈許池東跨小石橋水經橋下東流入西湖
- 18) 黄金臺在府東南一十六里又一曰小金臺在府東南一十五里按燕昭王於易水東南築黄金臺延天下士後 人慕其好賢之名亦築臺於此
- 19) 關梁居庸關在府北一百二十里兩山夾峙一水旁流關跨南北四十里懸崖峭壁最為要險淮南子曰天下有 九塞居庸其一焉關之南重巒疊障吞奇吐秀蒼翠可愛
- 20) 盧溝橋在府西南三十五里跨盧溝河金明昌初建本朝正統九年重修其長二百餘步石欄刻為獅形每早波 光曉月上下蕩漾曙景蒼然一奇也
- 21) 薊邱在舊燕城西北隅即古薊門也舊有樓館並廢但門存二土阜旁多林木鬱鬱蒼翠
- 22) 오종록, 조선 초엽 한양 정도 과정과 수도 방비, 한국사연구 127,
- 23) 갈조광
- 24) 김지수의 苔川先生集卷之二 조천록 燕都八景 b_021_516a 에 限韻追和天台山人八景 清陰稿라고 하고 김상헌의 시를 실었다. 천태산인은 김지수의 호이다.
- 25) 萬嶺縱橫鐵壁懸 雄關自昔控幽燕(만 고개에 중횡으로 철벽 쌓여 있거니와 / 웅대한 관 예로부터 유연 지방 제압했네)- 김상헌 거용첩취 수련.
- 26) 瑤墀賀罷豐年瑞 柱笏何人郢曲成(대궐에서 풍년 조짐 축하하길 끝마친 뒤 / 어느 누가 홀을 턱에 괴고 영광 지으려나)- 서산제설 미련.
- 27) 當日慙慙栽種意 只今粧點太平痕(그 당시에 정성스레 나무 캐다 심은 뜻이 / 지금 와선 태평 시절 단장하는 흔적 됐네)- 계문연수 경련.